

2023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국악 저기

기악 정기연주회
11.06.(월) 19:00
예향홀

성악 정기연주회
11.07.(화) 19:00
예향홀

교수음악회
11.08.(수) 19:00
예향홀

국악학과 커리큘럼 혁신포럼
11.09.(목) 16:00
지음홀

대학원 연주회
11.10.(금) 19:00
예향홀

11.06.

11.10.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예향홀·지음홀

주최·주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모시는 글

2023 국악제에 초대합니다.

황금빛 보리물결로 물들었던 나락을 추수하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 학과도 한 해의 땀방울을 정리하는 국악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개최하는 국악제이지만 올해는 더더욱 뜻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하고 코로나 이전의 시기로 되돌아가 봄 학기부터 온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은 우리 학생들이 고통의 나날을 훌훌 털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전공 연마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행복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학부 기악 전공과 성악 전공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의 연주를 통해 향후 국악계를 주도할 동량들의 뛰어난 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교강사님들이 우리 학교의 뛰어난 교수 수준을 선보이실 겁니다. 미래의 음악세계를 그리는 젊은이들의 포럼도 마련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펼쳐질 국악제에 오셔서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국악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과,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교강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학과장 이 용 식

기악 정기연주회

11.06.(월) 19:00_예향홀

사 회 김영현

관현합주 <태평가> 집 박 안희봉
김다은 외 37명

가곡을 연결해서 연주할 때,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며 남녀창으로 부르는 것이 태평가이다. 남창의 목직하고 깊이 있는 음색과 여창의 맑고 고운 선율이 따로 또 같이 흘러가는 특별한 조화의 느낌을 각 악기의 합주로 표현하고 저음악기 아쟁을 편성하여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정가 선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남도민요연곡 <금강산타령>, <성주풀이>, <남원산성>, <동백타령>

소 리 김정옥 정은효
가야금 김다녕 대 금 임채운 피 리 김민기
해 금 양채은 아 쟁 임선아 타 악 김태욱

오늘 연주되는 남도민요는 유려하면서도 음의 폭이 넓은 잘 짜인 선율과 심금을 울리는 가사가 조화된 노래다. 주된 내용은 사랑, 이별, 그리움 등으로 기본적으로 슬픈 정서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주제의 가사는 남도 특유의 음악적 어법과 만나 슬픈 정서를 극대화 시킨다.

해금병창 《수궁가》中 <고고천변> 해 금 최승아
장 구 김인서

《수궁가》중 <고고천변>은 별주부가 토끼를 구하러 육지로 나오면서 세상 경치를 표현한 노래이다. 별주부가 앞뒤 발을 내밀면서 육지로 나오는 모습뿐 아니라 세부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실과 묘사들이 특징이며, 경쾌한 중중모리장단으로 표현한 《수궁가》의 눈대목이다.
오늘 무대에서는 가야금병창이 아닌 해금병창으로 무대를 준비하였다. 신현석 선생님께 해금병창을 사사하고, 1년 넘게 갈고닦은 연주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이기도 하다. 고운 선처럼 뿜어내는 해금 가락과 당차고 간드러진 소리와 조화로 꾸며진 특색 있는 무대이다.

진도씻김굿 中 초가망석 ~ 제석굿 소 리 정은효
가야금 박지영 아 쟁 박신영 해 금 최승아
대 금 신예린 피 리 김다은 장 구 김인서
징 박수현

진도씻김굿은 이승에서 풀지 못한 망자의 원한을 풀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라남도 진도지역의 굿이다. 망자의 원한을 씻어준다고 해서 씻김굿이라 하며, 1980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오늘 무대는 신을 청배하는 초가망석 중 현수음악과 <신노래>, 제석굿은 <성주경>, <노적 청하기>, <업청하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국악관현악 지 휘 박승희
전남대학교 국악관현악단

<남도아리랑> 작 곡 백대웅

백대웅(1943~2011)은 다양한 장르의 전통음악 채보를 통해서 전통음악의 선율적 본질을 터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성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였다. 관현악곡 <남도아리랑>에는 전라도의 <진도아리랑>, 경상도의 <밀양아리랑> 등의 선율이 차용되어있고, 곡 중간에는 악기별 솔로와 변주가 6박 장단 안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국악기를 위한 관현악곡이나 상해오케스트라가 서양악기로 바꾸어 연주하기도 하였다.

가야금 협주곡 <찬기과랑가> 작 곡 정동희
가야금 박지영

<찬기과랑가>는 충담사가 신라시대의 화랑이었던 기과랑의 높은 인격을 노래한 십구체 향가를 모티브한 작품이다. 현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화랑의 정신과 모습을 통해 시련이나 역경에 굴하지 않는 패기를 지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고자 한다.

피리 협주곡 <달의 눈물>

작 곡 이정면
피 리 김민지

피리는 비교적 넓지 않은 음역에서 유장한 선율과 서의 미세한 떨림으로 음악을 표현한다. 굵직굵직한 떨림과 파르르 떨면서 빠지는 서의 울림은 무엇인가 아쉬움을 표현하기 적합하였고, 여인의 목소리와 비슷하게 느껴졌다. 한 많은 한국 여인들의 애환을 담고있는 메나리 선율과 주제로 화성적, 리듬적 요소를 발전시켜 선율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인간의 삶을 매달아 다이나믹한 관현악 곡이다.

<대지(Mother Earth)>

작 곡 조원행

소중한 우리의 대지 위에서 즐거움과 슬픔, 때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생각하며 세 개의 악장으로 표현하였다. 1악장 '대지의 생동' 2악장 '대지의 혼' 3악장 '대지의 춤'으로 구성하였다.

성악 정기연주회

11.07.(화) 19:00_예향홀

관소리 합창 박봉술바디《춘향가》中 <신연맞이 ~ 십장가>

연 출 전인삼
안 무 최지선
연기지도 소민영
합창지도 방윤수
편 곡 유민희

춘 향 이연주 사 또 박정후
행수기생 안예솔 호장 송시암 집장사령 이승준 군로사령 김정옥 유재현 형 리 김성호
1성부 김나연 백서영 안예솔 이연주 주 랑 안민주 이승준 박정후 신성자
2성부 손민지 배근영 유승희 차나희 윤승현 정은효
3성부 강승현 김성호 노유진 박경은 김정옥 김정환
노채연 문유빈 김동현 송시암 유재현

박봉술바디 춘향가는 사설과 음악적인 면에서 동시대에 연행되는 다른 춘향가에 비해 고제(古制)의 특성을 잘 간직한 소리이다. 또한 대마디 대장단, 우조 중심, 우겨내는 목 등 동편제 관소리의 전반적인 음악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전인삼 명창이 복원한 박봉술바디《춘향가》를 유민희 편곡의 합창곡으로 구성하였다. 고수의 북 반주에 맞춰 창자 혼자 부르는 관소리를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음악으로 들을 수 있다.

남도민요 <육자배기>

<육자배기>는 6박 장단에 맞기 때문에 육자박, 육자박이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 곡이 전라도의 대표적인 민요이기 때문에 전라도의 음악 어법을 육자배기토리라 부른다. 육자배기는 여러 사람이 윤창 형식으로 부르는데, 맨 처음 악곡을 시작할 때 '거나-혜'라는 1 장단의 가사를 함께 부름으로써 자연스럽게 곡을 연결한다. 사설은 '사람이'·'내정은' 과같이 시조 형태의 가사를 주로 노래하며 '내두름'이라는 시작 선율에 평으로 내는 목, 누운 목, 지르는 목 때로는 관소리의 일부 대목을 수용하여 부르기도 한다. 가사의 내용은 사랑, 연정에 관한 내용이 많다. 곡의 구성은 '육자배기-자진육자배기-삼산은 반락-개고리 타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수음악회

11.08.(수) 19:00_예향홀

사회 이용식

<상령산풀이>, <청성곡> 대금 김상연

<상령산풀이>와 <청성곡>은 대표적인 대금 독주곡이다. <상령산풀이>는 관현합주곡인 평조회상 중 상령산 선율을 한 옥타브 낮추어 합주 음악의 박자와 관계없이 연주자의 자유로운 호흡으로 변주한 곡이다. <청성곡>은 가곡 중 태평가의 선율을 본래 음역보다 높게 변주한 곡으로 대금의 맑고 청아한 음색이 특징인 곡이다.

<노천명의 '4월의 노래'에 의한 시상(詩想)> 작곡 이성천 가야금 곽재영

4월이 오면, 4월이 오면은..
향기로운 라일락이 우거지리
회색빛 우울을 걷어버리고
가지 않으려나 나의 사람아
저 라일락 아래로
라일락 아래로

푸른 물 다담뽕 안고 4월이 오면
가냘픈 맥박에도 피가 더하리니

청춘의 노래를 4월의 정령을
드높이 기운차게 불러보지 않으려나

양상한 얼굴의 구름을 벗기고
4월의 태양을 맞기 위해
다시 거문고의 줄을 골라
내 노래에 맞추지 않으려나 나의 사람아!

- 노천명 -

이승현류 태평소 산조 태평소 이승현 장 단 김민철

많은 기악 독주곡 중에서도 산조는 모든 민속 기악 연주자들에게 있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도전해야 할 '내적 동기부여'의 숙명과도 같은 장르이다. 그만큼 산조는 탁월한 기량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자유도 높은 예술세계를 펼쳐낼 수 있는 그릇이자 요람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다양한 악기들이 이러한 산조의 계보를 이어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으나 태평소 산조는 음량 조절 불가, 좁은 음역대의 한계 등 열악한 메커니즘의 이유로 산조로서 발전하지 못한 채 그 형식만을 빌어 시나위의 형태로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승현류 태평소 산조는 이러한 산조의 장르적 측면에서 비주류 악기인 태평소를 통해 그 가능성을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고 평소 본인이 산조의 틀을 엄두에 두고 틈틈이 고민하며 다듬고 있던 가락들을 한데 모아 구성하였다.

시나위와 살풀이, 남도민요<육자배기> 남도민요 김수미 김주희 소민영 유순덕 살풀이 최지선 아쟁 김선제 대금 박종현 해금 김선임 가야금 추정현 거문고 유소희 장구 김민철

시나위는 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즉흥적인 기악합주곡으로 각각 다른 음높이의 가락들이 즉흥적으로 불협 화음을 이루며 조화로운 묘미를 보여준다.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액을 풀어주는 살풀이춤과 즉흥적인 시나위가 어우러진 무대이다. 이어 남도의 토속 정서와 멋을 함축한 대표적인 민요인 <육자배기>를 감상할 수 있다.

<아리랑연곡> 작곡 김영재 해금1 안희봉 해금2 김선임 김유나 박솔지 박신아 이성화 정인선 최승아 백다연 타악 김민철

예로부터 전해오는 각 지방의 대표적인 아리랑 7곡 '구 아리랑, 아리랑, 긴 아리랑, 밀양아리랑, 정선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진도아리랑'을 해금 곡으로 편곡한 것으로 각 아리랑이 갖고 있는 시김새와 리듬의 특성이 잘 반영된 모음곡이다.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재창조된 이 곡은 현대에 있어서 전통 음악의 재해석 내지 수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특별기획 포럼 II
“커리큘럼 혁신포럼”

11.09.(목) 16:00_ 지음홀

기조발표 김상연(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좌장 박예원(문화체육관광부 2030 청년자문단 문화예술분과위원)

발제자	발표주제	토론자
김란희 (도토리포켓 기획사 대표)	예술단체 운영을 위한 예술가의 역할	이승헌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박재은 (前 청년인턴_국립국악원)	청년예술가의 지원혜택과 활용 사례	곽재영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이지원 (국립남도국악원 제작)	문화예술기관/국가기관에서의 업무와 역할	김서윤 (전남대학교 1학년 재학)
이시현 (前 광주비엔날레 광주문화재단 직원)	전통예술의 틈새시장, 마케터의 중요성	안예솔 (전남대학교 4학년 재학)

대학원 연주회

11.10.(금) 19:00_ 예향홀

《중광지곡》中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가야금 오예진 해 금 최서호
 대 금 박정인 피 리 안지수
 장 구 김인서

조선시대 풍류음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악곡으로, 여덟 혹은 아홉 곡의 작은 곡이 모여 하나의 큰 곡을 이루는 일종의 모음곡이다. 전곡을 한 번에 연주하기도 하고 몇 개의 악곡을 따로 떼어 연주하기도 하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아홉 곡의 구성 중 5번째인 <상현도드리>부터 <하현도드리>까지 연주한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가야금 오은수
 장 단 김인서

김죽파(1911~1989) 명인은 전라남도 영암 출신으로, 19세기 말에 가야금 산조를 처음 만들었다는 김창조 명인의 손녀로 태어나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서 가야금을 배웠고, 그의 제자인 한성기 명인에게서 풍류와 산조, 병창을 익혔다. 김죽파는 할아버지와 한성기 명인으로부터 배운 가야금 산조 가락을 다듬고, 자신만의 가락과 장단을 추가하여 약 55분가량의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완성하였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의 특징은 남성에게서 나온 가락이지만 오랜 세월이 걸쳐 여성인 김죽파 명인에 의해 다듬어진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음색과 섬세하고 심오한 농현에 있다. 197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겹청 조현법’을 사용하여 연주한다. 김죽파가 즐겨 타던 겹청 조현법은 가야금 제1현을 ‘청’ 줄보다 4도나 5도 더 낮은 음으로 조율하여 하청 밑에 음이 하나 더 있는 대신 맨 윗줄 고음이 한 줄 없게 되어 다른 가야금 산조보다 고음을 더 많이 눌러서 내야 하므로 깊은 공력이 요구된다.

<경마> 작 곡 황해회(黃海淮)
 열 후 YU WENQIANG

<경마>는 황해회(黃海淮)가 작곡한 열후(二胡) 독주곡이다. <경마>는 웅장한 기세, 뜨거운 숨결, 분방한 선율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다. 맑고 탄력 있는 활 뛰기, 강약이 뚜렷한 비브라토는 경주마의 상황을 묘사한다. 눈앞에 생생하고 열렬한 경주마 장면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상상(想像) 속으로>

작곡가 정동희
해 금1 정인선
해 금2 박신아
장 구 김수빈

상상속에서 우리는 항상 자유롭다. 바람결처럼 스쳐가는 상상의 조각이나 끊임없이 연결되는 상상의 파편들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누에의 고치에서 실을 뽑듯이 가느다란 두 개의 실선으로 나의 상상의 조각들을 이어 보았다.

<진토정(秦土情)>

작 곡 주 전(周展)
고 쟁 LI MING-YAN

<진토정>은 고쟁 연주자 주전(周展)이 산시성 민족음악을 소재로 2008년에 작곡한 고쟁 협주곡이다. 고향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화려한 연주기교로 표현했다.

대풍류

피 리 광재혁 안지수
대 금 박정인 해 금 최서호
장 구 박성준 작 고 김태욱

대풍류의 대는 대나무를 가리키고, 풍류는 '즐기는 음악' 또는 '감상하는 음악'을 뜻하며, 관악기 중심으로 연주하는 음악이다. 향피리 2, 대금 1, 해금 1, 장구 1, 좌고 1로 구성된 삼현육각 편성을 보여주는 전통 기악 합주곡이다.

교수진

학 과 장 이용식
전 임 교 수 전인삼 안희봉 이용식 윤혜진 김상연 광재영 이승현
명 예 교 수 성심은 성애순
겸 임 교 수 나승희 방윤수 최지선

강사진

판 소 리 김수미 김주희 소민영 유순덕
가야금 병창 김연우
가 야 금 정기원 추정현
거 문 고 유소희 황진아
대 금 박종현 조아라
해 금 김선임 김유나 박솔지
피 리 이 영
타 악 김광섭 이민형 이왕재
아 쟁 김선제
지 휘 박승희
이 론 강다현 김미영 임란경 장희선 제셋별
작 곡 고은영
피 아 노 송민경

조 교 서지혜
학 생 회 장 최승아

재학생

판 소 리 (4학년) 강승현 김성호 김나연 박경은 백서영 안예솔 이연주 주 랑
(3학년) 김정욱 김준현 안민주 이승준
(2학년) 박정후 유승희 차나희
(1학년) 김동현 송시암 신규연 신성자 유재현 윤승현 정은효

가야금병창 (4학년) 노유진 손민지
(3학년) 김정환
(2학년) 노채연 문유빈 배근영

가 야 금 (4학년) 강시원
(3학년) 이해령
(2학년) 김연우 박서연 박지영 최서연
(1학년) 김다녕 김민희 김서운 황서연

해 금 (4학년) 김명주 김서현 유수현 최승아
(3학년) 백다연 백준영 최예은
(2학년) 김수은 양채은
(1학년) 이성연

거 문 고 (4학년) 김민지
(3학년) 전예빈 함예주

아 쟁 (4학년) 김희원 이수아
(2학년) 박신영 이지원
(1학년) 임선아

대 금 (4학년) 최은서
(3학년) 김주희
(2학년) 김민재 신예린 조수빈 조수정 최유림
(1학년) 강창호 안예담 임채운 조건희

타 악 (4학년) 류지희
(3학년) 김인서 김태욱
(1학년) 박수현

피 리 (4학년) 김민지
(2학년) 김다은
(1학년) 김민기 박주은 유경서 이나영

작 곡 (2학년) 송지선 정아현

이 론 (3학년) 김영현
(1학년) 김정남 김지영



2024 입사요강



전공별	실기 및 악기명	실기과제곡	배점 비율	비고	
국악 성악	판소리	(1) 단가 중 1곡	40%		
		(2) 판소리 중 1곡	60%		
	가곡	(1) 평시조 중 1곡	40%		
		(2) 남창가곡, 여창가곡 중 1곡	60%		
	가야금병창	(1) 단가 중 1곡	40%		
		(2) 판소리 중 1곡	60%		
국악 기악	현악	가야금	(1) 정악곡 중 1곡	40%	짧은 산조 또는 단악장도 가능
			(2) 산조	60%	
		거문고	(1) 정악곡 중 1곡	40%	
			(2) 산조	60%	
		해금	(1) 정악곡 중 1곡	40%	
			(2) 산조	60%	
	아쟁	(1) 정악곡 중 1곡	40%		
		(2) 산조	60%		
	관악 · 타악	피리	(1) 정악곡 중 1곡	40%	
			(2) 산조	60%	
		대금	(1) 정악곡 중 1곡	40%	
			(2) 산조	60%	
타악		(1) 풍물가락	40%	굿거리-자진모리- 휘모리장단을 포함하여 3분이상	
		(2) 판소리 장단	30%	당일 추천	
	(3) 산조 장단	30%			
국악 작곡 이론	국악 작곡 (택1)	(1) 전조를 포함한 화성풀이 및 분석	100%	(1),(2) 중 택1 (1) 제한시간 90분 (2) 제한시간 180분	
		(2) 주어진 주제에 의한 36마디 이상의 국악기 독주곡 작곡	100%		
	국악 이론	(1) 국악기초이론	100%	제한시간 90분	

- 모든 실기는 반주 없이 외워서 연주하며, 연주 소요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야한다.
- 판소리는 2가지 이상의 장단이 포함된 대목이어야 한다.
- 실기에 사용할 모든 악기는 본인이 지참해야한다.
- 입학원서의 '실기 과제명'란에 반드시 실기 또는 악기명(예: 판소리, 가야금, 국악작곡 등)을 입력해야 한다.

